“BECOMING IS THE NEW BEGINNING”
디아 컨템포러리 재개관, 젊은 작가 5인을 조명하는 기획전《DYNAMIS (디나미스)》

Annex 1

연여인 Yeon Yeoin, *Bloom 1*, 2026, Oil on linen, 145.5 x 89.4 cm

전시 제목 : DYNAMIS 디나미스

참여 작가 : 연여인, 오세린, 조소윤, 김선재, 줄리아문

프레스 프리뷰: 2026년 4월 25일 (토) 오후 1시 - 3시

전시 기간 : 2026년 4월 25일 (토) – 5월 16일 (토)

전시 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전시 소개

디아컨템포러리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남동 신규 공간에서 재개관 기념 그룹전 《DYNAMIS(디나미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삼청동 개관 이후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장해 한남동으로 거점을 옮긴 뒤 처음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디아컨템포러리의 새로운 출발과 향후 큐레토리얼 비전을 제시하는 상징적 전시다.

전시 제목 'DYNAMIS'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개념 DYNAMIS (Δ'YNAMIΣ)에서 차용했다. 이는 가능성, 잠재성, 되어감의 힘을 뜻하며, 존재를 이미 완결된 결과가 아닌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상태로 이해하는 사유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개념을 동시대 미술의 맥락 안에서 다시 읽어내며, 결과보다 과정, 완성보다 생성의 상태에 주목한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매체와 조형 언어를 통해 세계를 감각하고 해석한다. 회화, 조각, 오브제, 설치 등 다양한 형식 안에서 기억과 감정, 시간과 관계의 층위가 교차하며, 작품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보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감각의 장으로 제시된다. 이번 전시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 형성 중인 언어, 변화하는 시선 자체를 하나의 미학적 가치로 제안한다.

디아컨템포러리는 2010년 싱가포르에서 시작해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과 국제 교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활동해 왔다. 서울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직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실험적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기획을 통해 국내 미술 생태계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남동 재개관전 《DYNAMIS》는 디아컨템포러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젊은 작가 발굴과 성장의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작가들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해 왔다면, 서울에서는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현재를 조명하고 그들의 조형 언어가 확장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역할에 집중한다.

《DYNAMIS》는 단순한 신진 작가 그룹전이 아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생성되고 있는 감각과 가능성을 포착하는 전시다. 이를 통해 예술을 고정된 결과물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열려 있는 과정으로 다시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전시 서문

POTENTIALITY IS THE CAPACITY TO BE OTHERWISE."
잠재성이란, 지금과는 다른 상태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 ARISTOTLE

'DYNAMIS(디나미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존재를 이미 완결된 상태가 아닌 '되어가는 상태'—곧 가능성과 잠재성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사유에서 출발한다. 이는 무엇이 되었는가보다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시선이며, 결과가 아닌 생성의 과정을 존재의 본질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번 전시는 이 개념을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실천 속에서 다시 사유하고자 한다. 완성된 결과로서의 작품이 아니라, 감각과 실험, 긴장과 질문이 축적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오늘날 예술이 빠른 성취와 명확한 결과를 요구받는 환경 속에서, 이 전시는 오히려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 유동하는 형식, 생성 중인 의미를 긍정하며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다시 호출한다.

이는 디아컨템포러리가 동시대 젊은 작가들을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미 완결된 언어보다, 형성 중인 감각과 조형 언어—곧 '되어가는 상태'에 놓인 작업들에 주목하는 것. 본 전시는 그러한 시선 위에서,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은 순간—작가의 언어가 생성되고 확장되는 지점을 포착한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감각하고 번역한다. 이들의 작업은 재현을 넘어 기억과 감정, 시간과 관계의 층위를 교차시키며 복합적인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익숙한 이미지의 전복, 서사의 파편화, 물질과 감각의 충돌은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동시대의 정서와 공명하는 조형 언어로 확장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생성되는가이다.

오세린(B.1987)은 원본과 복제, 실제와 가상, 가치와 폐기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며,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를 드러낸다. 버려진 액세서리와 가짜 보석을 수집한 뒤, 밀랍과 석고 몰드를 제작하고 금속 주조와 도자 소성 과정을 통해 형태를 재구성한다. 복제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사물에 잠재된 가능성을 활성화하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금속과 도자는 열과 시간을 통해 변화하는 물질로, 작가는 그 변형의 과정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이동하는 상태를 조형적으로 드러낸다.

조소윤(B.1997)의 회화는 일상의 파편적 순간들을 수집하고, 이를 장지 위에 중첩하며 하나의 화면으로 재구성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몽타주처럼 병치되며, 단일한 서사가 아닌 다층적인 감각의 흐름을 형성한다. 그의 작업은 사소한 순간들의 축적을 통해, 완결된 이미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감각의 상태'를 드러낸다.

줄리아 문(B.2002)의 작업은 이동과 경계 경험을 기반으로,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유화를 기반으로 한 그의 회화는 유동적으로 중첩되는 색과 형태의 레이어를 통해 신체의 감각을 구축한다. 화면 속 신체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공간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왜곡과 중첩,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경계는 유동적으로 흔들린다. 이는 '형성 중인 존재'에 대한 회화적 탐구이다.

연여인(B.1995)의 회화는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내면 세계를 구축한다. 잉크 드로잉과 디지털 작업을 통해 형성해온 시각 언어는 최근 유화로 확장되며, 감정의 층위를 물질적으로 환원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감정의 구조를 수행하는 조형적 장치로 기능하며, 서로 중첩되고 변주되며 하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의 회화는 기억과 감정의 파편을 축적하며, 규정되지 않는 상태—감정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김선재(B.1997)는 'Over World'라는 가상의 중간계를 구축하며,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감각적 환경을 제시한다. 합판, 레진, 에폭시 퍼티 등 인공적 재료를 기반으로 조형을 구성하고, 에어브러시를 통해 표면을 처리함으로써 디지털 이미지와 유사한 시각적 질감을 구현한다. 그의 작업은 가상의 세계를 물질로 번역하는 과정이며, 하나의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재구성되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 전시는 작가 개인의 성장 서사에 머물지 않는다. 예술을 하나의 '열린 상태'로 이해하며, 작가–작품–관람자 사이에서 의미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여기서 작품은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며, 관람 또한 해석의 종착점이 아닌 또 다른 생성의 계기가 된다.

작가 약력

연여인
YEON YEOIN
B.1995

연여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과정을 졸업했다. 최근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5), DOOR(서울, 2023), 서울시립미술관 벙커(서울, 2019)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6), 구하우스(서울, 2025), 서울한옥위크 전시(서울, 2024), 젠틀몬스터 HAUS NOWHERE SHENZHEN (선전, 2024), POP 한남(서울, 2023), 사무람(서울, 2023), 서울미술관(서울, 2022; 2021), 기지재단(서울, 2022), 메종 오브제(파리, 2022), 행화탕(서울, 2019), 대림 구슬모아당구장(서울, 2019) 등에서 열린 단체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9년 INTERNATIONALES DIGITALKUNST FESTIVAL(슈투트가르트, 독일) 오디오비주얼 부문과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서울, 한국) 한국 애니메이션 단편 부문에 작품이 상영되었다. 구하우스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오세린
SERIN OH
B.1987

오세린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화와 금속공예 학사를, 동 대학원에서 금속공예 석사를 마쳤다. 작가는 파운드리 서울 (서울, 한국, 2022), 세움아트스페이스(서울, 한국, 2018), 경남도립미술관(창원, 한국, 2017), 가창창작스튜디오; HANGZHOU ZHE MU HUI ART SPACE,(대구, 한국; 항저우, 중국, 2016), 갤러리예담 컨템포러리(서울, 한국, 2012)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26), THE THIRD (서울, 한국, 2026), 공간파도(서울, 한국, 2025),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 2024), 한솥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2024), 서울공예박물관(서울, 한국, 2024)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푸른문화재단 등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줄리아 문
JULIA MOON
B.2002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학부 졸업 후 현재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올해 졸업 예정이다. 주요 전시로는 디아컨템포러리(서울, 2026), KERSGALLERY(암스테르담, 2026), KOPPLE COLLECTIVE(런던, 2025), CICA 미술관(김포, 2024), MODERN ART OXFORD(옥스퍼드, 2023), 경인미술관(서울, 2020)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조소윤
SOYUN JO
B.1997

조소윤은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 졸업 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올해 이화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26), 부산 복합예술공간(부산, 한국, 2025), 한길 북하우스(파주, 한국, 2025), 이화아트갤러리(서울, 한국, 2025), KATE OH GALLERY(뉴욕, 미국, 2025), SUN GALLERY(2025), 온수공간(서울, 한국, 2024), 굽네 플레이타운(2024), 인천 17사단 갤러리(인천, 한국, 2024), 갤러리 라메르(서울, 한국, 2024), 두실 갤러리(2024)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선재
SEONJAE KIM
B.1997

김선재는 대구대학교 현대미술과 이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작가는 디아컨템포러리 (서울, 2026),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26), 공간해안 (인천, 2026), 021갤러리 (대구, 2025), 대구 신세계 갤러리 (대구, 2025), WWWSPACE2 (서울, 2025), 수성아트피아 (대구, 2025), 뎁센드2 (서울, 2025), 동작문화재단 동작아트갤러리 (서울, 2023), 옥션제로베이스 (서울, 2021)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작품 이미지

Annex 1

연여인 Yeon Yeoin
'Bloom 1', 2026, Oil on linen, 145.5 x 89.4 cm

작품 이미지

Annex 2

조소윤 Soyun Jo
'내 비밀은 말하기 어려워', 2025, Coloring, airbrush on Korean paper, 174 x 130 cm

작품 이미지

Annex 3

줄리아 문 Julia Moon
'Naked Scream II', 2026, Oil on canvas, 150 x 120 cm

작품 이미지

Annex 4

김선재 SEONJAE KIM
‘미지의 숲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한 기원의 여신상’, 2026, Acrylic on canvas, panel,
193.9 x 112.1 cm; 235 x 154 cm (including frame)

작품 이미지

Annex 5

오세린 SERIN OH

‘불에서 나온 것들’, 2026, Glazed ceramic, brass, 30 x 50 x 20 cm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디아컨템포러리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A)는 동시대 미술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각과 사유, 물질과 맥락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싱가포르와 서울을 기반으로 축적해 온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DIA는 동시대 예술의 다층적인 흐름을 탐색하며 작가와 작품, 공간과 담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DIA(디아)는 그간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국내외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작가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그 예술적 잠재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축적을 기반으로, 2024년 서울 삼청동에서 첫 문을 연 DIA는 이후 한남동의 확장된 공간으로 거점을 옮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고, 보다 넓은 시야로 동시대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시를 전개하고 있다.

DIA(디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각 작업이 지닌 조형적 언어와 개념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동시대와 맺는 관계를 함께 드러내는 일이다. 회화, 조각,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며, 예술의 실험성과 미학적 밀도, 물질성과 사유의 층위가 살아 있는 전시를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보다 확장된 감각을 제안한다.
동시에 DIA(디아)는 일시적인 흐름이나 협소한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고유한 시각과 태도를 지닌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이들이 보다 넓은 국제적 문맥 안에서 읽히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예술이 예상 가능한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발견과 질문,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DIA(디아)는 전시 공간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 작가의 비전과 관객의 경험, 그리고 동시대 담론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설계함으로써, 예술이 보다 밀도 있게 경험되고 오래 사유될 수 있는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 DISCOVER INSPIRING ARTISTRY라는 이름은 곧 이러한 방향성을 함축한다. 예술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발견이 다시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예술적 실천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DIA(디아)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전시 문의

[담당자]

김우재 디렉터

woojae@diacontemporary.com

info@diacontemporary.com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Annex 1-5 이미지는 구글드라이브 **(여기)**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드립니다.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 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디아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10길 12 04419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